

I. 사고특성 및 위험요인

- 급변하는 수중 상황에 따른 위험성 큼
- 대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함
- 광범위한 지역의 수색작업은 장기화 될 가능성 있어 피로도 증가

II. 수난사고 대응절차(방침)

- 신속한 상황파악 및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 사고현장 정보수집 → 수난구조 구역 설정 → 수난구조 구역 위치 표시(부표) → 수난구조 방법 결정 → 구조력 안전점검 → 수난구조 활동 전개 → 사고 현장 위험성 변화 관찰(중지 및 변경) → 수난구조 활동 종료 점검

III. 수난사고 대응절차(기준)

- 신속한 상황파악 및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 사고접수 → 출동 → 현장 도착 전까지 제반 상황을 파악한다.
 - 현장도착 즉시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한다.(지휘권 이양시 다시 지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국민안전처 훈령)
- 사고현장 정보수집(획득)
 - 신고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통한 요구조사에 대한 정보 수집
 - 사고발생경위, 익수 지점, 익수자 수
 - 사고현장의 환경여건 및 구조력
 - 수심, 유속, 수류의 변화, 바닥지형, 기상, 작업가능한 구조대원수, 보유장비
 - 사고규모 대비 구조력 부족시 인근지역 소방력 또는 유관기관 지원 요청
 - 위험성 관찰 및 평가
 - 환경여건 대비 구조력, 사고현장의 제반 위험성 파악

□ 수난구조 활동구역 설정

- 사고현장에서 수집된 정보에 따라 수난구조 구역 설정
- 만일 정확한 지점을 찾지 못할 때에는 가장 확률이 높은 구역을 설정
 - ※ 가능하면 해안선이나 방파제, 부두, 강둑, 강변, 제방 등을 수색 경계 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색지역은 가능하면 사각형을 유지해야 다음 수색구역과 구별하기 쉬워 중복해서 수색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은 물론 여러 가지 수색·구조방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수난구조 활동구역 위치 표시(통제선, 부표 등)

- 수난구조 활동구역이 설정되면 사고현장 주변에 통제선 설치 및 부표 등을 띄워 수난구조 활동구역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위치표시

□ 수난구조 방법 결정

- 수상구조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익수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근방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잠재적 구조자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1. 과연 나에게 구조할 능력이 있는가 ?
 2. 어떠한 방법으로 구조할 것인가 ?
 - 물 밖에서의 구조, 얇은 물에 걸어(뛰기)들어가 구조, 수영구조, 도구 사용 구조
 - ※ 물에 빠진 요구조자를 구출할 때에는 4원칙(던지고, 끌어당기고, 저어가고, 수영한다)을 준수한다.
- 수중구조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가능하면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고 수색할 지역의 수심, 물의 흐름, 바닥의 구성 물질 및 형태, 장애물 등에 따라 수색 방법과 시작지점을 정한다.
 - 앵커에 로프를 묶어 띄운 부표나 수중에서 띄워 올린 위치표시 부표를 수색시작 시점으로 한다.
 - 가능하면 정북쪽, 정남쪽, 정동쪽, 정서쪽 등 방위각을 기억하기 편리한 쪽으로 진행방향을 설정한다. 수색줄 사용하지 않고 나침반에 의존하면 수색할 때에는 수색하는 2명중 한명은 방향유지 및 짝 유지를 책임지고 다른 한명은 수색에 전념하도록 한다.
 - 수색을 마치고 다음 지역으로 수색지역을 옮길 때에는 약간씩 겹쳐야 한곳도 빠뜨리지 않고 수색 할 수 있다.

□ 투입전 구조력 안전점검

- 우선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잠수 전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 수난구조 활동목적, 진행방향, 비상시 대처방법, 입.출수 장소 및 방법, 상승을 위한 최소 잔압 등을 결정하고 수신호를 숙지한다.
- 구조장비 위치와 사용법 숙지, 구체적인 비상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 수난구조 활동 전개

- 사전에 계획한대로 수난구조 활동을 시행하며
- 수중에서 활동 중에는 철저하게 짝을 유지해야 하고, 현장에 2인 이상의 예비대원이 확보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태를 최소화 한다.
- ※ 구조활동에 임할 때에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 범위 내에서 구조에 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영에 미숙한 사람이 익수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수영해서 구조하고자 한다면 이는 무모한 처사이다. 즉 구조에 임할 때에는 가장 위험이 적은 방법을 사용하여 구조에 임해야 한다.

□ 사고현장 위험성 변화 관찰(중지 및 변경)

- 수난사고 활동 중에 구조대원 자신의 위급 상황이 닥치면 즉시 행동을 멈추고 심호흡으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한 다음 판단하고 행동 한다.
※ ‘정지(Stop) → 생각하고(Think) → 행동(Action)’
- 사고현장의 상태는 항상 변화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속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조를 시작 할 때에는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 파도가 심하게 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정조 때 구조를 개시 하였는데 구조시간이 오래 걸리면 조류는 창조나 낙조로 바뀌어 유속이 빨라져 구조를 힘들게 할 수 있다.
- 구조방법 중지 및 변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수량증감, 기상변화, 구조력 증감, 투입대원의 체력변화 등

□ 구조활동 종료 점검

- 구조력(인원 및 장비) 이상유무 확인·점검
- 수중활동 시 개인별 잠수기록표 작성
- 언론 및 대민정서 동향